

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정통한 법리는 자비 광명 관덕 연등
 한국 불교의 전통과 현대 불교의 정수를 담은
 현대불교신문 : www.chanduk.com
 한국 불교의 전통과 현대 불교의 정수를 담은
 031)792-6288/794-4055

부타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7월 20일(음력 6월 15일) 수요일 (주간) 제 535 호

클릭! china, buddhopia.com 불교도 한류 열풍

부다피아 중국어판 20일 오픈... 다양한 정보 '자랑'

세계 인구는 60억 정도. 이중 중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어느 정도일까? 13억 중국인을 비롯해 대만과 전세계에 퍼져있는 화교(해의 거주 중국인)까지 포함하면 약 15억의 인구가 중국어를 사용한다.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한자를 사용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세계 최대 공용어인 영어 사용율을 30%에 육박할 정도다. 이런 엄청난 중국어 사용 인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문화를 중화권에 알리는 국내 중국어 전용 사이트는 한국 관광공사 등 손꼽을 정도로 불과하다. 한국 불교를 알리는 전문 사이트가 전무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까?

‘현대불교 미디어센터(HBMC)’가 한류(韓流) 열풍이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어권을 대상으로 중문 불교사이트를 오픈한다.

2002년 3월 국내 최초로 영문 불교사이트(http://buddhopia.com/eng/)를 오픈, 해외포교에 나선 부다피아는 지난 5월 역시 국내 처음으로 러시아어 불교사이트(russia.buddhopia.com)를 개설한데 이어 7월 20일에는 ‘중문 부다피아(china.buddhopia.com)’의 문을 연다.

중문 부다피아의 개통은 불교문화에 친숙한 15억 중어권 시민들을 상대로 해외포교에 나선다는 의미를 갖는다. 중국불교협회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중국 사찰은 3만여 곳, 스님 25만명에 신도는 2억명에 달한다.

중문 부다피아에는 ▲시대별 한국 불교사 ▲한국의 주요사찰(삼보사찰, 5대 적멸보궁, 3대 관음도량, 5대 총림, 조계종 25교구본사 등) ▲템플스테이 사찰 및 수행프로그램 안내 ▲한국 역대 고승 14인 ▲경전 소개 및 중국어 경전(42장경 등 1차분 21권) 원문 등의 콘텐츠를 담고 있다.

또한 ▲불교용어(1만9천 단어) 사전 ▲한국 불교 문화유산(해인사 팔만대장경, 불국사, 석굴암, 경주 남산, 직지심체요절) ▲한국의 부처님오신날 ▲원성스님 ‘동승(童僧)’ 그림전 ▲국·내외 중국어 불교뉴스 ▲중문 불교사이트 링크 등의 불교정보를 갖췄다.

중문 부다피아의 개통은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전통 불교 복원에 나서고 있는 중국불교의 중흥에 적지 않게 기여할 전망이다.

북경대에서 선학(禪學) 박사학위를 받은 월암 스님(경주 칠불암 주지)은 “초고속 경제성장과 맞물려 중국불교도 대단한 잠재력을 발휘할 것이기에, 그에 맞설 수 있는 한국 불교계의 정체성 정립과 포교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며 “중문 부다피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포살법회’ 왜 안하셔요?

계율 안 지키는 삶 반영 ‘우려’ ... 일부사찰 현대화 반응 좋아

지계(持戒), 위대한 구속인가 타의적 해방인가?
 대답은 ‘포살(佈薩)’에 있다. 불제자로서 지켜야 할 실천계약을 조목조목 읽으며 자기 잘못을 드러내고 누우치는 포살은 수행자의 고백의 장이다. 하지만 대중 앞에서 참회하고 바른 삶의 각오를 다지는 포살전통이 활발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다.

초하루, 보름, 각 재일 등 전통법회와 일요법회, 각종 테마법회 등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포살’을 주제로 한 법회는 일부 사찰에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포살법회가 대중화·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은 “수행자가 계행에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부산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의 진단도 마찬가지다. “자기 허물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 포살법회를 주관할 지도법사의 부재, 포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해이한 지계 정신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재가자를 위한 포살법회 활성화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1999년 포살법회의 순서와 진행법을 담은 <재가보살 포살본> 3천부를 발행,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 당시 불교계는 “성찰적 참회수행법을 통해 재가불자가 정기적으로 자신의 수행을 점검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그 때 뿐이었다.

포교연구실 관계자는 “99년 3천부의 ‘재가보살 포살본’ 발송이후, 전국 사찰에 포살본 책자를 더 지원할 적은 없다. 예산상의 문제에

다가 연구실 담당자의 정기적 업무 교체로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종단 차원의 포살법회도 있었다. 1994년 개혁종단을 출범시킨 조계종 중앙종무기과 소인자 스님들은 1996년 2월부터 청정승가상 구원을 위해 매일 한 차례 포살법회를 봉행했다. 포살법회 봉행 그 자체만으로도 종단 내외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포살법회는 2년 6개월 만에 중단됐다. 계만 됐지 지계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당시 포살법회를 주도했던 수진 스님은 종단의 가장 큰 이유로 “율장 정신의 실종”으로 분석했다. 계만 받았다고 수행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름마다 계를 받는다’는 생각이 포살법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포살법회 전통의 실종은 율해 초 본사가 실시한 계율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계율을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출가자 10명 중 3명이, 재가자는 6명 정도가 “계율을 잘 지키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포살법회를 봉행하는 곳은 과연 얼마나 될까? 현재 정확한 통계는 없다. 조계종 5대 총림을 비롯해 일부 사찰 및 선원 등이 정기적인 포살법회를 봉행하면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2면으로 계속



15일 법륜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 모래만다라 특별전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가운데)과 초페대사(오른쪽 끝) 등 티베트 스님들의 모래만다라 제작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한-티 불심 ‘만다라’로 활짝 피었네

달라이 라마 한국지부 개소기념 모래만다라 특별전 개막

달라이 라마 동북아 사무소 한국지부 개소를 기념한 모래만다라 특별전이 서울 법륜사 불일미술관에서 7월 15일 개막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회정 진각종 총리원장, 육천범을 대학 확장 일운 스님, 법륜사 주지 보경 스님, 달라이 라마 동북아사무소 대표 초페 팍조 체링 대사, 조펠 스님(부산 광성사,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법장 스님은 축사에서 “모래만다라의 화엄세계는 불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만다라 전시와 한국지부 개소를 통해 대승불교의 전통을 공유하는 한국-티베트의 교류가 깊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페 대사는 “한국지부는 달라이 라마 및 티베트 불교 소식 교류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며 “모래만다라 전시로 티베트 불교문화

공유하는 동시에 ‘플뿌리 운동’도 함께 전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다름살라 티베트 망명정부 내 ‘규토사원’의 전통예불의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연돼 눈길을 끌었다.

전시는 7월 21일까지 이어지며, 행사 기간 중에는 회운 스님의 연꽃그림전시가 함께 열린다. 7월 25~29일에는 서울 봉은사 2차 전시가 계획되었다. 관련기사 3·23면 김성진 기자 thaiswhy@buddhopia.com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에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 상량, 연기차, 불사)

‘할’

내가-물 아는가... 있어야지

공양은 하라 한끼로

그림·조태호

중안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박노자 교수 russia.buddhopia.com 자문위원 맡아

러시아 출신 귀화 사학자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교수(한국학·사학)가 7월 11일 ‘러시아어 부다피아(russia.buddhopia.com)’의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박 교수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네티즌들이 한국 불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공유할 수 있는 매체가 생긴만큼 러시아 불교 발전에 디딤돌이 되도록 사이트 운영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곡사·현대불교 ‘자비명상 템플스테이’ 현장 10면

불교계 유일의 지성 저널 ‘불교평론’을 주목 하십시오

‘불교평론’ 제23호 발간!

특집/사이버공간의 종교

- 불교와 사이버 사회 대응양상/김용철
- 불교사이트의 현황과 문제점/김재경
- 불교인의 사이버 실태와 특징/박수호
- 원불교 원티스(WTS) 구축의 현재와 미래/이현애
- 가톨릭의 인터넷 활용 실태와 한계/박문수
- 한국의 사이버 교회와 영상 예배의 현황/허호익

시론

개혁 없이 불교 미래 없다/박광서
 불교문화재 보존, 종단의 특단이 필요하다/문명대

세미나 중계

선사들의 삶을 통해 본 동물들의 도덕적 지위/서제영

논단

현대불교미술의 시대 미감과 광의성/윤범모
 매물로-뽕머의 철학과 보조 지능의 간파신/박진영

해외불교논단

불교생태학의 덕(德)윤리적 접근/데이미언 카운, 배성환 역

권말기획/논쟁의 불교학(13)

용수와 니야야학과의 논쟁 논쟁/문윤식

‘불교평론’ 기호호(제24호)부터 현대불교신문이 만듭니다.

지난 1999년 겨울호를 내면서 ‘한국불교 지식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나비의 날개짓’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출발한 ‘불교평론’을 올 가을호(제24호)부터 현대불교신문사가 제작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그간의 구독에 대해서는 구독료 소급 적용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24호부터 새롭게 정기 구독자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독자님과 신규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구독신청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불교평론>의 역사와 권위를 계승하여 더욱 참신하고 유익한 계간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독자여러분의 큰 호응을 당부 드립니다.

- <불교평론> 구독 단위 : 1년
- 구독 조건 및 구독료 : 선납 40,000원
- 구독료 납부 방법 : 계좌 입금 (최초 1년 구독 후부터 지로용지 발송, 입금 후 반드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독료 납부 계좌 번호 : 국민은행 : 038-25-0008-365(현대불교신문사) 농협 : 100126-55-002417(현대불교신문사)
- 구독문의 : (02) 2004-8211~2(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